

한국의 사회조직간의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 지역아동센터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김 준 기* · 정 복 교**

〈目 次〉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경험적 배경
- IV. 분석의 틀 및 연구방법론
- V. 네트워크 분석의 실제
- VI. 결론 및 연구의 함의

〈요 약〉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를 사례로 한국의 지역사회 조직간 네트워크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네트워크 형성의 동기를 자원(정보자원, 인적자원, 물적자원, 클라이언트)을 획득하고자 하는 조직의 욕구에서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민간 사회복지 조직간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민관간 네트워크, 민간 영리/비영리 기관간 네트워크를 총괄해 살펴보았다. 네트워크 표본추출방식은 누적표본추출(snowball sampling) 방식, 네트워크 측정의 스케일(scale of measurement) 측면에서 본 연구의 설문은 수치형(valued) 데이터에 기초하되, 필요에 따라 이분형(binary) 데이터로 변형해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정량적 네트워크 분석에 기초하고 있으며, 정량적 네트워크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주체 및 각종 매개조직 주체별 인식조사를 위한 심층 면접을 병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조직 네트워크 내 자원교환은 자원의 다과에 의해서도 결정되지만, 역사적/사회적 맥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동질적 네트워크에 기초한 연대적 사회자본(bonding social capital) 활용의 단계를 넘어서서, 이질적 자원교환 네트워크에 기초한 교량적 사회자본(bridging social capital) 활용 단계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NGO, 비영리조직, 네트워크, 거버넌스, 조직자원, 사회자본】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jkkim@snu.ac.kr)

**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박사과정(boj3@pitt.edu)

I. 서 론

본 연구의 연구 과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지역사회 사회서비스 비영리 조직들이 형성하는 네트워크의 양상은 어떠한 특징을 가질까, 둘째, 비영리 조직이 다른 영리/비영리, 민간/정부조직과 관계를 형성/유지하는 동기는 무엇일까. 첫 번째 연구과제와 관련해 본 연구는 비영리 조직의 네트워크의 경우 동종 조직과의 연계(homophily)가 활발한지, 아니면 다른 종류에 속하는 조직과의 연계(heterophily)가 활발한지를 중요한 항목으로 검토할 것이다. 둘째 연구과제에 대한 해답은 비영리 조직이 어떤 특성을 지닌 조직인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본 연구는 그 단서를 네트워크에 배태되어 있는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찾아보고자 한다(Lin et al., 2001; Lin, 2001; Marsden & Hurlbert, 1988; Zald, 1970; Pfeffer & Salancik, 1978).

네트워크 관점의 핵심은 사회 행위자들 간의 관계로부터 패턴을 찾아내고 그것이 갖는 함의를 찾아내는데 있다(Wasserman & Faust, 1994). 개별 행위자의 행태, 태도, 신념에 대한 분석을 넘어서서, 사회 주체가 다른 주체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하는 구조와 환경을 포괄하여 조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네트워크 분석의 특징이다 (Wellman, 1988; Benson, 1975).

오랜 동안 학계의 조직 연구는 폐쇄 체계의 틀(closed system framework)에 국한되어 이루어졌다. Setznick(1949)의 연구가 조직 환경의 주제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조직간 관계에 대한 연구가 비로소 표면으로 떠올랐다. 행정학에 있어서 가장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네트워크 개념의 적용은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라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책과정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관계를 정책네트워크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을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는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강은숙, 2002; 송희준, 송미원, 2002; 고길곤 2007). 그러나 기존 행정학계의 연구들은 정부의 정책 형성 및 집행과정에 대한 연구이며 업밀한 의미에서 조직간 네트워크 분석이라고 보기 힘들다. 또한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효과성을 분석하거나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전략을 분석하는 연구(Considine & Lewis, 2003; O'Toole & Meier, 1999; McGuire, 2002), 공공관리측면에서 조직간 관계를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다룬 연구(Bolland & Wilson, 1994; Provan & Milward, 1995; 김인순, 신은주, 김혜선, 1999; 강창현, 2001; 김준기, 이민호, 2006; 박치성, 2006)가 있으나 정책자원이라는 관점에서 네트워크의 역할에 대해 주목하고 이를 조직간 네트워크 연구로 연계시킨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기존의 조직간 네트워크 연구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별성을 지닌다. 첫째, 자원교환/동원 모형과 네트워크 모형을 결합함과 동시에

이를 네트워크에 내재한 ‘정책자원’이라는 시각에서 조명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둘째, 지역사회자원에 해당하는 조직 유형을 크게 사회서비스조직(지역아동센터, 종합복지관, 기타복지시설), 매개조직(자원봉사센터, 관공서, 시민단체), 후원조직(기업군)으로 구분해 향후 지역사회자원 내지는 지역네트워크 연구에 있어 유용한 구분 틀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기존의 네트워크 조사와 달리 질적 조사(인터뷰)를 결합함으로써 조직간 네트워크 분석의 적실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보고자 하는 사례는 관악구 지역 내의 지역아동센터(방과후 공부방)를 중심으로 한 조직간 네트워크이다.¹⁾ 한국적 토대에서 민간의 자발성에 기초해 개별 조직간 네트워크를 형성한 사례로 지역아동센터는 흥미로운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 특히 관악구 내의 지역아동센터들은 동일 유형 조직 간 네트워크 형성은 물론이고, 지역내 사회복지관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에 더해 관공서, 기업 등 다른 유형 조직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활발히 자원을 교환하고 있다. 본 연구가 본 사례를 분석하면서 단순히 비영리조직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민관간 네트워크, 민간 영리/비영리 기관간 네트워크를 포괄해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이다.

요컨대, 본 연구는 지역내 비영리조직의 네트워크가 형성/유지/변화되는 이유로서 자원의 교환/동원에서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동종조직간 네트워크(사회서비스 관련 비영리조직)를 주목함은 물론 다른 유형의 조직들과의 네트워크를 포괄해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양태를 기술하는 연구에서 출발하지만, 비영리기관 실무자, 매개기관의 실무자, 관공서의 공무원 등과의 질적 면접을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인과 관계적 분석을 통합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네트워크와 자원 (network and resources) 모형

-
- 1) 연구대상으로서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 공부방 간의 관계에 대해 명확한 제시가 필요하다. 본 연구가 지역아동센터(2003년 개정아동복지법)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지만, 그 중심을 ‘방과후 공부방’에 두고 있다.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는 종래의 민간조직인 ‘방과후 공부방’이 2003년 말 아동복지법이라는 제도적 범주 내로 편입하게 되면서 등장한 조직이며, 개정아동복지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새로운 지역센터로서의 규범적 역할과 비교할 때 활동의 중심은 아직까지 방과후 공부방 활동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이론의 가장 큰 특징은 네트워크 이론은 다른 시각들과 달리 구조적 혹은 관계적 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Wasserman & Faust, 1994). 조직연구에서의 네트워크 접근법 가운데 본 연구는 조직간 관계 유형으로서의 연구와 거버넌스 유형으로서의 네트워크를 결합하는 시각에 입각해 있으며²⁾ 근본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한 자원교환/ 조직간 자원의존모형에 기반하고 있다 (Emerson, 1962; Blau, 1964; Thompson, 1967; Levine & White, 1961; Litwak & Hylton, 1961).

1) 네트워크 거버넌스(network governance)와 자원교환의 속성

거버넌스 유형으로서 조직 네트워크, 흔히 네트워크 거버넌스(network governance)라고 불리는 개념은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며, 공식적인 구조나 혹은 비공식적인 규범이나 관습까지 포함하는 자발적이고도 의도적인 목적에서의 통제 방식을 의미한다(Williamson, 1996).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개념은 다수의 학자들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개념 정의되고 있으며, 나타난 바와 같이 “네트워크 조직(network organization)”, “네트워크 형태의 조직(networks forms of organization)”, “기업간 네트워크(interfirm networks”, “조직네트워크(organization networks)”, “유연한 전문화(flexible specialization)” 등의 다양한 개념 정의는 이러한 학자 간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대한 강조점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Jones, Hesterly, and Borgatti, 1997).

거버넌스적 시각에 따르면 다수 행위자가 포함된 정책 사안에 대해 정부가 단독으로 이를 처리하기는 불가능하며 따라서 정부 외부의 참여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강력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거버넌스 유형으로서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강점이 나타난다는 것이다(Considine and Lewis, 2003). 이러한 이유에서 거버넌스 방식의 차이에 따른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Considine & Lewis, 2003; O'Toole & Meier, 1999; McGuire, 2002).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개념 정의와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효과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들 개념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속성은 바로 (1) 자원 교환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상호작용의 유형과 (2) 독립적인 개체들 간의 자원의 흐름이라는 점이다 (Powell, 1990; Larson, 1992). 본 연구와 관련해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속성은 자원의 교환관계

2) 조직 연구에서의 네트워크 접근법은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김준기 · 이민호, 2006) 첫째, 거버넌스 유형으로서 조직 네트워크, 둘째, 조직간 관계 유형으로서 조직 네트워크, 셋째, 조직내 관계 유형으로서 조직 네트워크의 구분이 그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부여하고 있다.

2) 조직간 관계 유형으로서의 네트워크와 자원의존모형

오랜 동안 학계의 조직 연구는 폐쇄 체계의 틀(closed system framework)에 국한되어 이루어으나 Selznick(1949)의 연구가 조직 환경의 주제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조직간 관계에 대한 연구가 비로소 표면으로 떠올랐다. 사회내의 행위자(social actor) 사이의 관계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네트워크 연구는 1970년대부터 조직간 관계 연구를 조망하는 유용한 틀로서 많은 연구들에서 활용되고 있다 (Aldrich & Whetten, 1981; Evan, 1978; Paulson, 1985; Van de Ven, Emmett, & Koenig, 1975).

조직간 관계 연구를 조망하는 시각 가운데 자원의존론(resource dependence) 접근은 개방체계의 역동적인 행위자간 상호작용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틀로 평가받는다.³⁾ 자원의존론(The resource dependence framework)의 경우 다양한 선구자적 논의가 있었지만(Emerson, 1962; Blau, 1964; Thompson, 1967; Levine & White, 1961; Litwak & Hylton, 1961), 본격적으로 자원의존론이 조직간 연구(interorganizational treatment)로 등장하게 된 것은 Zald (1970)의 연구 이후이며, Pfeffer와 Salancik (1978)의 연구가 그 종합판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자원의존론적 논의는 조직들이 격동과 불확실성의 시기에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조직들이 환경의 불확실성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한다(Cook, 1977). 이전의 연구들이 모두 개별 조직을 분석단위로 설정한 반면 자원의존이론은 조직과 환경의 접점에 관한 이론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Benson, 1975; Boje & Whetten, 1981; Rogers, 1974).

조직간 관계유형으로서 조직 네트워크를 접근함에 있어서 자원의존론적 접근은 자생적으로 출발한 비영리조직들이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서로 소유자원을 교환하는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론으로 평가된다. Levine and White(1961)는 조직들 간의 관계 속에서 자원을 서로 획득하려고 하는 과정을 강조하였다 는 점에서 자원의존이론의 시발점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후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이러한 조직 간의 자원교환에 관한 논의가 보다 정교화 되었으며 조직간 관계 이론을 설명하는 주요한 기제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Thompson, 1967; Cook, 1977; Scharpf, 1978; Aldrich, 1976). 개별 조직의 자원의존 관계를 도식화하는 연구와 함께 주목을 받은 부분으로서 네트워크 내에서

3) 조직간 관계 유형을 분석하는 틀에는 크게 자원의존론 (resource dependence), 사회계층론(social class), 제도론(institutional) 관점의 세 가지 틀이 있으나 (Mizruchi & Galaskiewicz, 1994) 주지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첫 번째 자원의존론적 시각에 기반해 있다.

개별 조직이 보이는 전략적 행동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개별 조직은 자원획득의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다른 조직과의 상호의존관계에서의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전략적으로 시도하게 되며, 이런 노력은 다른 조직으로부터 얻는 자원의 중요성을 줄이고 대체가능성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자원의존관계는 결국 조직 간의 권력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분석틀로 기능할 수 있다(김준기, 2000).

[표1] A조직의 B조직 의존도 결정요인

B조직이 A조직에 제공하는		자원의 중요성	
		높음	낮음
자원의 대체가능성	높음	낮은 의존관계	낮은 의존관계
	낮음	높은 의존관계	독립적인 관계

자료: Sharph(1978), p355; 김준기(2000), p.14.

2. 교환자원의 유형과 사회서비스 조직

Levine & White (1961)는 사회서비스 조직 간에 교환되는 자원으로 클라이언트의 교환, 인적교환, 자금을 포함한 자원의 교환으로 조직간 네트워크를 측정하였으며, Boje & Whetten (1981)은 클라이언트의 의뢰, 서비스의 교환, 정보교환, 자금의 이전으로 사회서비스 조직의 네트워크를 분석하였으며, Woodard & Dorian(1981)은 보건조직의 네트워크를 연구하면서 클라이언트의 의뢰, 서비스의 교환, 정보의 교환, 물적 자원과 관리활동 교환을 중심으로 조직간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한편 국내 연구로서 이현주(1998)는 장애인복지관련 조직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조직간 협의, 자금, 클라이언트의 의뢰 측면에서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백종만·홍경준 (1999)은 실업지원 비영리조직의 네트워크를 분석하면서 클라이언트의 의뢰, 자금, 물적자원, 정보교환을 중심으로 교환 내용을 범주화하여 조직간 관계를 측정하였다. 홍송이 (2001)의 연구는 자활서비스 조직네트워크를 연구하면서 클라이언트 의뢰, 자원교환, 재원교환, 정보교환의 네 가지 교환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이들 선행 연구를 통해서 보듯 사회서비스 조직의 교환자원은 크게 정보자원, 인적자원, 물적자원, 클라이언트 의뢰의 네 가지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 사회서비스조직의 네트워크 교환자원에 대한 선행연구

연구자	교환자원의 유형
Levine & White, 1962	클라이언트의 교환, 인적교환, 자금을 포함한 자원의 교환
Boje & Whetten, 1981	클라이언트의 의뢰, 서비스의 교환, 정보교환, 자금의 이전
Woodard & Dorian, 1981	클라이언트의 의뢰, 서비스의 교환, 정보의 교환, 물적 자원과 관리활동 교환
이현주, 1998	조직간 협의, 자금, 클라이언트의 의뢰
백종만·홍경준, 1999	클라이언트의 의뢰, 자금, 물적자원, 정보교환
홍송이, 2000	클라이언트 의뢰, 자원교환, 재원교환, 정보교환

3. 네트워크분석과 상호작용의 유형

네트워크의 관계를 분석하는 유형에는 크게 결속성(cohesion) 분석, 구조적 등위성 분석(structural equivalence), 그리고 중심성(centrality) 분석이 있으며, 본 연구는 결속성과 중심성 분석에 역점을 두고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결속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에는 포괄성(inclusiveness), 연결정도(degree)와 밀도(density) 등이 있다. 이 중 네트워크의 형태와 관계된 것으로는 연결의 강도와 연결 지속기간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연결의 강도는 얼마나 자주 접촉하는가의 빈도로 측정된다. 연결의 지속기간도 연결의 질을 측정하는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이다. 결속에 관한 또 다른 대표적인 개념으로 경로거리라는 것이다. 두 결점(node)을 연결시키는데 거쳐야 하는 최소 단계수로 정의된 경로거리는 두 결점이 서로 연결되는데 최소 몇 개의 중간 단계를 거여야 되는지를 분석한다(김용학, 2004b).

결속성 분석은 관계적 접근(relational approach)을 위주로 하는 것으로서(김용학, 2004a), 관계적 접근은 네트워크 내에서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중점적으로 보고자 직접적인 관계의 유무를 측정한다. 관계적 접근에서는 행위자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 유무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누가 하나의 결속 집단(clique)에 속하는지, 이를 결속 집단과 다른 결속 집단과는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가 분석의 대상이다.

중심성(centrality)은 한 행위자가 전체 네트워크에서 중심에 위치하는 정도를 표현하는 지표이다. 중심성은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 연결정도(degree) 중심성, 근접(closeness) 중심성, 매개(betweenness) 중심성 등이 대표적이다(손동

원, 2002).

연결정도 중심성⁴⁾은 특정 행위자가 다른 점들과 연결된 정도를 보는 개념으로, 한 점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점들의 합으로 측정된다. 그런데 이 연결정도 중심성은 한 점에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점의 수를 중심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관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정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수신(내향) 중심성은 타 행위자로부터 선택받은 정도를 나타내며, 발신(외향) 중심성은 주체 행위자가 다른 기관을 선택한 정도를 나타낸다.⁵⁾

근접 중심성⁶⁾은 지수가 높을수록 다른 점들과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며, 이 경우 전체 네트워크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정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 조작이 네트워크 근접 중심성이 높을수록 정보, 권력, 영향력, 사회적 지위에 대한 확보와 접근이 쉽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손동원, 2002). 네트워크 내 각 점간의 거리를 근거로 하여 중심성을 측정하며, 연결정도 중심성과는 달리 직접적으로 연결된 점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내 간접적으로 연결된 모든 점들간의 거리를 계산하여 중심성을 측정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여기서 간접적인 연결이란, 중간에서 매개하는 점을 거쳐서 연결되는 경우를 일컫는다. 이렇게 간접적인 연결까지 포함하는 근접중심성을 사용하면 한 점이 네트워크 전체의 다른 점과 연결된 거리를 모두 고려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근접 중심성을 이용하면 한 점의 글로벌 중심성(global centrality) 측정이 가능하다(Wasserman & Faust, 1994).

매개중심성⁷⁾은 최단거리 내에 행위자가 하나의 노드로서 이어주는 역할을

- 4) 연결정도 중심성은 다음의 식으로 표현 된다 (단, g는 네트워크 내 전체 점의 수, $d(n_i)$ 는 행위자 i의 네트워크 내 절대적 연결정도를 나타냄).

$$d(n_i) = \sum_j x_{ji} \quad C_D(n_i) = \frac{d(n_i)}{g-1}$$

- 5) 본 연구는 발신/수신중심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외향/내향 중심성의 용어도 일 반적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손동원, 2002).

- 6) 근접중심성은 다음의 식으로 표현된다. (단, $d(n_i, n_j)$ 는 행위자 i와 j 사이에 최단거리(geodesic distance)가 갖는 라인의 수를 나타냄). 모든 행위자들로부터 본 거리값을 도출해 합산한 후 역수를 취하면 근접 중심성을 대표하게 된다(Wasserman & Faust, 1994).

$$C_C(n_i) = [\sum_{j=1}^g d(n_i, n_j)^{-1}]$$

- 7) 매개중심성은 다음과 같은 지표로 나타낼 수 있다. g_{jk} 는 최단거리를 갖는 경로들의 수를 나타낸다. 만약 특정 행위자 i가 두 행위자 사이의 최단거리 경로 사이에 존재하는 수를 $g_{jk}(n_i)$ 라고 한다면 이들 사이의 비율은 바로 매개중심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Wasserman & Faust, 1994). 본 지표는 아래 수식을 통해 보는 바와 같다.

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Wasserman & Faust, 1994). 다시 말해 매개중심성은 네트워크 내에서 한 점이 담당하는 매개자 혹은 중재자 역할의 정도로서 중심성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가운데 행위자(actors in the middle) 내지는 문지기역할(gatekeeping)로서 일컬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Freeman, 1979).

III. 경험적 배경

한국의 경우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지역 빈곤문제에 정부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왔으며, 이로 인해 지역사회와 자발적 조직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동원하는 전략을 통해 지역내 각종 서비스 수요를 제공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방과후 공부방이 2000년대 들어 지역아동센터로 변모하는 과정은 보다 흥미로운 이슈를 던져주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라는 한국 고유의 전환기적 사건으로 인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새로운 과제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계속된 경기 침체는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고, 이와 동시에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공급자들의 역량을 더욱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폭증하는 수요와 줄어드는 민간후원이라는 이중고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인 네트워크와 사회자본에 의존했던 방과후 공부방들은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기에 이른다. 정부 또한 지역빈곤 문제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간 조직들이 소유하고 있는 네트워크 내의 자원을 정책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민간 공부방들의 지원 요청을 받아들이게 된다. 결국 2003년 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고 지역아동센터가 정부의 공식적 지원 조직으로 등장하게 된다.

개정아동복지법 제 16조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아동가정지원사업, 아동주간보호사업, 아동전문상담사업, 학대아동보호사업, 공동생활가정사업, 방과후 아동지도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

관악구 지역아동센터(공부방)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⁸⁾ 2006년 1월 17일 현재 31개 공부방이 관악구청의 현황 자료를 통해 파악되고 있으며 이중 신

$$C_B(n_i) = \sum_{j < k} g_{jk}(n_i) / g_{jk}$$

8) 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 협의회의 임시총회 자료집에 의하면 2005년 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 협의회 소속 지역아동센터의 수는 425개이다(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2005).

고시설이 18개, 미신고 시설이 13개이다. 이를 31개 지역아동센터 가운데 서울시를 통한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18개 기관이었다. 또한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기관은 13개 단체였다. 운영비와 급식비를 모두 지원받는 기관이 10곳, 급식비만 지원을 받는 기관이 3곳, 운영비만 지급받는 기관이 7곳이었다.⁹⁾

관악구 지역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기관간 네트워크 협의체의 종류에는 관악주민연대를 중심으로 한 임대아파트공부방 네트워크, 성민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신림남부지역공부방협의회, 난곡지역단체협의회, 카톨릭공부방협의회 등이 있다([표3]).

[표3] 관악구지역 지역아동센터 관련 네트워크 협의체

소속기관	
관악주민연대 중심 임대아파트 공부방 네트워크	열린공부방, 드림한누리 공부방, 산마루 공부방, 다솜공부방(신림10동), 두리하나 공부방, 사과나무 공부방
성민종합사회복지관 중심 신림남부지역공부방협의회	다솜공부방(신림10동), 예꿈공부방, 벌솔교실, 새숲공부방, 섬김의 집, 우리들의 공부방, 예본교회, 작은학교 공부방, 작은나무들의 집, 푸른울타리 교실, 햇살 공부방 등
난곡지역단체협의회	낙골공부방, 우리자리 공부방, 관악일터나눔자활후견기관, 난곡주민도서실, 남부교육센터, 꿈꾸는 아이들의 학교 등
카톨릭공부방협의회	다솜공부방(봉천3동), 꿈나무 공부방, 새숲공부방, 분도 공부방, 우리들의 공부방, 참사랑 공부방 등

IV. 분석의 틀 및 연구방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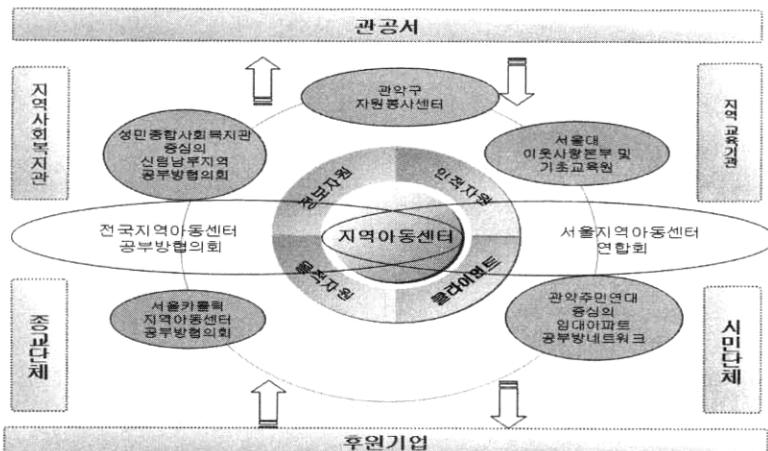
1. 분석의 틀

본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가 소유하고 있는 자원을 크게 인적자원, 물적자원, 정보자원, 물적자원, 클라이언트의 4가지로 구분한다. 이때 인적자원이란 자원봉사자지원, 실무인력지원 등을 의미한다. 물적자원이란, 금전/현물자원을 뜻하며, 방과후 아동지도 서비스와 관련해 교류되는 후원금, 정부지원금, 기타 기금 등의 금전적 지원과 사무실, 기타 용품 등의 현물지원을 의미한다. 정보자원이란, 방과후 아동지도와 관련한 프로그램 관련 워크샵, 교육, 서비스 및 수혜자

9) 관악구청 가정복지과 담당자의 현지실사를 통한 공식 현황 집계자료임을 밝힌다. 담당 공무원과 인터뷰한 결과에 따르면 관악구청은 향후 집계되지 않은 기관들까지 더 포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에 관한 자료, 정부 및 기업 지원 등의 정보에 관련된 지원을 의미한다.

[그림1] 분석의 틀 – 지역아동센터의 조직간 관계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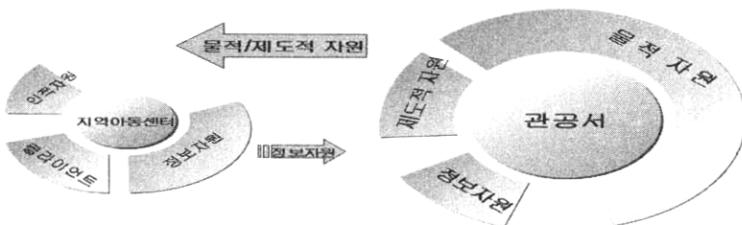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조직을 보는 관점은 자신의 소유자원의 교환 및 협력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극대화 하는 하나의 행위자로서이다. 큰 범주에서 보아 자원의존이론모형에 속한다.

지역아동센터와 관공서의 관계는 정부와 NGO의 관계를 바라보는 이론적 틀을 유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원의존 모형을 광의에서 해석하여 조직간의 자원의존관계가 기술적 자원에 대한 의존과 조직의 생존을 위한 정통성 부여의 문제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분석을 시도하였다 (김준기, 2006). 기존의 이론과는 달리 정부-NGO의 관계를 대칭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각각의 섹터가 상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유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며, 상호보완 또는 의존적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관공서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물적자원을 소유하고 있으며, 아동복지정책/지역복지 정책의 수립과 관련해 지역아동센터를 하나의 중요한 정책 대안으로 고려하고 이들 단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마련 능력을 지닌 존재로 보고 있다.¹⁰⁾ 한편 정부주체와의 상대적 비교에서 볼 때 NGO 특히 지역아

10) 정부의 물적 지원은 법적 변화를 수반하며, 공급후원조직간 제도적 협의를 근간으로 하는 속성이 있어 제도적 지원을 4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정부의 금전적/물적지원의 본질은 제도적 지원이라는 본질적 정부 역할의 측면에서 접근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정부의 금전적 지원은 2003년 말 아동복지법 개정이 토대가 되었으며, 보건소를 통해 이루어진 무료진료 및 예방주사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와의 제도적 협의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반면 정부의 경우 정책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클라이언트를 직접 상대하는 민간 조직과 구별되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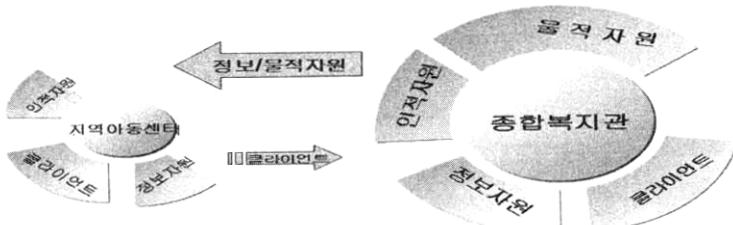
동센터가 소유하고 있는 자원으로는 지역내 터를 잡고 있는 풀뿌리 조직이라는 점에서 지역 내 아동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경험/기술을 토대로 한 정보력 소유를 꼽을 수 있다.

[그림2] 지역아동센터와 관공서 사이의 자원교환모형



지역아동센터와 지역사회종합복지관 사이의 관계는 다소 중첩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양자는 비영리조직으로서 공히 사회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구이지만, 소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규모, 영향력, 포괄성 측면에서 대조적이다. 실제로 지역아동센터들의 경우 지역내 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연대활동을 벌이는 경우의 예도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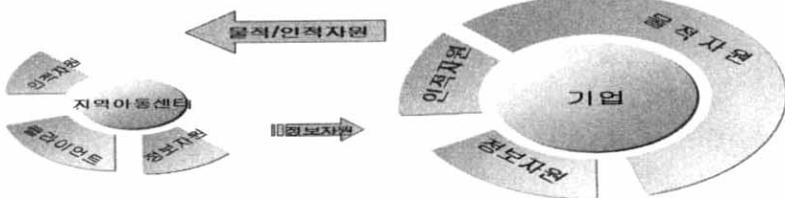
[그림3] 지역아동센터와 종합복지관 사이의 자원교환 일반 모형



아래의 모형에서 보듯 지역아동센터는 절대적인 소유자원의 측면에서 기업에 비해 그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소유비율 면에 있어서도 인적자원/물적자원/정보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때 기업은 풍부하게 소유하고 있는 물적자원을 비영리 기관에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다하는 기회를 갖고, 지역아동센터 등의 비영리기구는 기관의 사업을 지속하는 재원으로 삼는다. 또한 최근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는 사회봉사단의 열풍에서 보듯 기업체 직원들을 중심으로 한 자원봉사자 인력의 풀은 비영리조직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다.

정부의 자원구성요소 중 클라이언트 항목은 제외되어 있다.

[그림4] 지역아동센터와 기업 사이의 자원교환 모형



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법적 의미에서 지역아동센터¹¹⁾는 지역사회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아동복지법 제16조 11항, 2003년 12월 19일 개정)을 지칭한다.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분석의 특성상 분석 대상범위를 좁혀서 관악구 지역 내의 지역아동센터간,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한 정부, 민간 복지기관 간 네트워크를 분석한다. 관악구내 지역 아동센터는 총 31개가 있으며(관악구청 지역아동센터 현황자료, 2006년 1월 17일 현재), 이는 신고시설과 미신고 시설의 총수이다. 지역아동센터와 관계를 맺고 있는 정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처 포함), 민간기업, 종교재단, 자원봉사연계 센터 등 자원제공 기관들과의 연계망(network)을 분석하고자 한다.

네트워크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주체별 인식조사를 위한 심층 면접을 병행한다. 면접 대상은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 담당 사무관, 서울시청 아동/청소년 담당자, 관악구청 사회복지과 담당자, 관악구청 자원봉사센터 담당자, 서울대 이웃사랑본부 실무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통해 사회자본이 정책자원으로 활동되는데 대한 정책담당자의 인식을 조사하고, 정부에 지원을 요구하면서 민관간 네트워크 확장을 도모하는 지역아동센터 담당자의 인식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11) 2005년 기준으로 지역아동센터는 미취학아동 800명, 초등학생 9900명, 중학생 1800명, 고등학생 500명 등 전체 1만3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운영은 종교단체가 233개소, 시민 및 민간단체가 70개소, 사회복지법인 80개소, 기타 개인 등이 맡고 있음.

[표4] 네트워크 설문 응답 기관 (43곳)

조직 구분	설문 응답 기관
지역아동센터 (29곳)	열린공부방, 빛나라공부방, 다솜공부방(신림 10동), 산마루공부방, 희망공부방, 두리하나 공부방, 낙골 공부방, 사랑의 글방, 꿈나무 공부방, 섬김의 집, 작은나무들의 집, 새숲 공부방, 우리들의 공부방, 꿈마을 공부방, 살림터 공부방, 산성 공부방, 참사랑 공부방, 민영공부방, 행복한 흄스쿨, 성장 공부방, 은천 공부방, 분도 공부방, 사과나무 공부방, 희망오름 공부방, 한누리 공부방, 드림한누리 공부방, 샘물 공부방, 비전 교실 공부방, 광동 공부방
종합사회복지관부설 공부방(4곳)	봉천종합사회복지관(해맑은 공부방), 중앙대종합사회복지관(파랑새 공부방),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성민종합사회복지관(햇살공부방)
아동/청소년 복지시설(5곳)	동명지역아동복지센터, 상록보육원, 상록여자자립생활관, 서울신림청소년쉼터, 우리아이희망 신림센터
자원봉사센터 (3곳)	관악구 자원봉사센터, 서울대 이웃사랑본부, 서울대기초교육원(자원봉사 수업)
관공서(1곳)	관악구청 가정복지과
시민단체(1곳)	관악주민연대

[표5] 설문응답 기관 외 면접대상 기관

기관명	
관공서	서울시청 사회복지과, 보건복지부 아동복지팀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완전연결망¹²⁾의 기법을 사용하였고, 네트워크 표본추출방식은 누적표본추출(snowball method) 방식이다. 처음 관악구청 가정복지과의 공부방 및 지역아동센터로 등록된 31개의 공부방을 핵심 조사 대상으로 네트워크 설문대상 리스트를 작성했다. 이후 설문과정에서 등장하는 지역아동센터 및 시민단체, 기업, 종교단체 등의 명단을 추가해 가는 방식을 적용했다. 보다 면밀한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해당기관을 직접 방문해 설문을 수행하였다.¹³⁾

측정의 스케일(scale of measurement) 측면에서 본 연구의 설문은 기본적으로 수치형 데이터(valued data)에 기초해 설계되었다. 수치형 데이터에 근거할 경우

12) 완전연결망(Complete Network)이란 상호작용이 있는지에 따라 이분법으로 표현하거나 관계의 강도를 숫자로 표현하는 연결망이다 (김용학 2004b).

13) 본 연구 보고서의 부록에는 첫 네트워크 설문지에 기재되었던 기관과 이후 설문과정에서 추가된 기관을 구분해 제시하고 있다.

보다 깊이 있는 정보를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회조직간의 중심성(centrality) 분석(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근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등을 하였으며, UCINET 6.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표6] 설문의 내용

기관 일반 사항	기관 조직유형	운영주체 및 후원 형태
	기관 규모 및 설립	설립시기, 아동수, 기관 평수
	재정지원 관련	운영비 지원, 급식비 지원
	신고관련	신고여부, 신고일
기관간 네트워크 관련 (정부, 지역아동센터, 후원기업)	외부자원의 필요성을 느끼는 정도	
	친분관계의 맥락	학교동문, 같은 모임 성원, 함께 훈련받은 경험, 함께 근무한 경험, 같은 고향 사람, 친인척 관계, 기타
	기관간 연계 횟수	정보교환, 인적/ 물적자원/ 클라이언트 교환

V. 네트워크 분석의 실제

1. 조사대상기관의 기술 분석¹⁴⁾

본 연구 설문에 응답한 관악구 내의 해당기관은 총 43곳이다. 이중 지역아동센터(29곳), 종합사회복지관 (4곳), 기타 지역복지시설 (5곳), 자원봉사센터(3곳), 관공서(1곳), 시민단체(1곳) 등이다. 그 외 관악구 지역내 조직이 아니므로 설문 대상 기관은 아니지만 질적 분석을 위해 인터뷰를 수행한 기관에는 서울시 사회복지과, 보건복지부 아동복지팀이 있다. 본 연구 설문 응답기관은 아니지만, 설문 응답을 받는 과정에서 네트워크 상의 자원교환주체로 지목된 주체들을 포함하였으며 네트워크를 나타내었으며, 이 경우 네트워크상의 행위자로 등장하는 기관의 수는 총 179개이다.¹⁵⁾

14) 본 연구는 기존 네트워크 연구와 달리 동질적 조직 외에 이질적 조직을 포함하여 자원 교환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이므로, 동일 기준에서 비교하기 힘든 근본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질적 유형 조직들의 자료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이는 본 네트워크 연구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일면으로는 분석의 객관성과 엄밀성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본 기술 분석에서는 해당 질문의 취지상 (상근자수, 자원봉사자 수, 이용학생수, 연간 예산규모 등), 매개기관 (관공서, 자원봉사센터, 시민단체) 을 제외하고 아동/청소년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만을 대상으로 요약을 하기로 한다.

연구대상 기관들의 상근자 수(2006년 8월 현재)를 보면, 3명이라고 응답한 곳이 10곳으로 응답한 아동복지서비스 기관 중 26.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2명이라고 답한 기관은 총 9곳(23.7%), 그 다음으로 1명(7곳), 4명(6곳) 순이었다.¹⁵⁾

[표7] 설문응답 기관의 상근자 수

상근자수 (명)	0	1	2	3	4	5	12	15	합계
지역아동센터(개)	1	7	9	7	2	4			29
종합복지관 부설공부방 및 아동청소년복지시설				3	4		1	1	9
기관수 (개) (비율:%)	1 (2.6)	7 (18.4)	9 (23.7)	10 (26.3)	6 (15.8)	4 (10.5)	1 (2.6)	1 (2.6)	38 (100)

자원봉사자 수의 경우 10명 이내에 해당하는 시설이 아동/청소년 분야 사회서비스 조직 중 응답기관의 37.1% (유효비율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는 자원봉사자가 11명 ~ 20명인 경우로 총 10곳 (28.6%)이다. 한편 자원봉사자가 5명 이하인 조직도 17.1%에 이르렀다.

[표8] 설문응답 기관의 자원봉사자 수

자원봉사자수 (명)	50이하	6~10	11~20	21~30	31~50	51이상	결측값	합계
지역아동센터(개)	4	7	10	7	1			29
종합복지관 부설공부방 및 아동청소년복지시설	2			1	1	2	3	9
기관수(개) (비율:%) (유효비율:%)	6 (15.8) (17.1)	7 (18.4) (20.0)	10 (26.3) (28.6)	8 (21.1) (22.9)	2 (5.3) (5.7)	2 (5.3) (5.7)	3 (7.9)	38 (100.0)

지역아동센터 및 동종 사회복지서비스 조직의 연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1천만원 이하의 영세한 시설 규모를 가진 단체가 6 곳에 달하여 전체의 19% (유효비율 기준) 정도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5천만원 이하의 시설 규모를 가진 지역아동센터 및 사회복지관을 살펴보면 전체의 43.75%에 해당한

15) 설문의 대상이 된 기관의 수와 네트워크 상 행위자(node)의 수가 다른 이유는 네트워크 분석의 경우 설문에 응답한 기관들이 자원교환 네트워크 상에서 접촉을 하고 있다고 지목한 기관들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다.

16) 아동교육만을 담당하는 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방과후 아동교육지도 담당부서나 팀의 인력만을 치적한다.

다. 한편 종합사회복지관을 제외한 순수 지역아동센터만을 분석할 경우 1천만원 미만 (24%), 5천만원 미만 (48%)로 영세성의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9] 설문응답 기관의 연간 예산

예산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 미만	1억 이상	결측값	합계
지역아동센터 수	6	6	10	3	4	29
종합복지관 부설공부방 및 아동청소년복지시설		2		5	2	9
총 기관수 (비율:%) (유표비율:%)	6 (15.8) (18.75)	8 (21.1) (25)	10 (26.3) (31.25)	8 (21.1) (25)	6 (15.8)	38 (100.0)

지역아동센터들의 연간 예산 중 정부의 지원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지원을 전혀 받지 않는 기관이 전체의 24%로 가장 높았으며, 정부지원액이 50%미만인 기관의 누적 비율이 52%였다. 한편 관악구 가정복지과의 현황조사 자료에 의하면 31개 지역아동센터 가운데 서울시를 통한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18개 기관이었다. 또한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기관은 13개 단체였다. 운영비와 급식비를 모두 지원받는 기관이 10곳, 급식비만 지원을 받는 기관이 3곳, 운영비만 지급받는 기관이 7곳이었다.

2. 자원 영역별 네트워크 분석의 실제

1) 정보교환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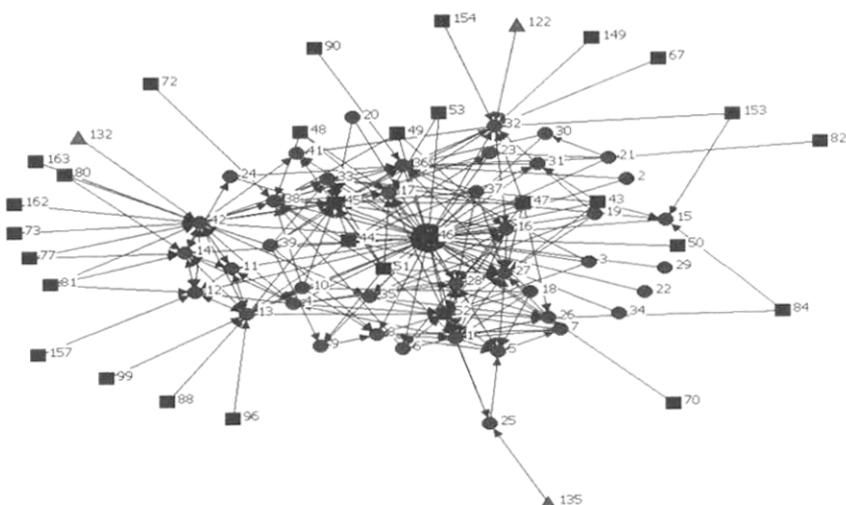
정보교환발신 중심성을 비교하면([그림 5], [표 10]), 관악주민연대(52번)를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밀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민종합사회복지관(39번), 중앙 대종합사회복지관(38번) 등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관악주민연대의 경우 지역아동센터가 등장하기 이전 공부방이 지역운동과 아동복지 풀뿌리 조직으로 활동을 시작하던 초기부터 지역연대 운동조직으로 출발하였다. 본 조직이 지역 조직으로서 중요한 정보 제공자 기능을 하는 것은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 근거한 면이 있으며, 관악주민연대가 갖고 있는 다양한 조직간 네트워크의 형태에 기인한 면도 있을 것으로 본다.¹⁷⁾ 매개중심성의 측면에서 관악구청 가정복지과

17) 한편 관악주민연대의 실무자에 따르면 98/99년 지나면서 개별공부방이 개별 공부방 들의 전문성 커지면서 연대 필요성이 느슨해졌으며, 지역아동센터 개별 단체별로 고 유영역 내 활동에 주력하는 단계로 접어들은 것으로 평가받기도 한다(관악주민연대 실무자 인터뷰 2007년 6월 5일).

(46번)는 최상위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역아동센터 및 종합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서비스 조직을 제외한 기타 매개기관(관공서, 교육 기관, 자원봉사센터, 시민단체) 등이 네트워크 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본 자료는 네트워크의 동질성(homophily)과 이질성(heterophily)의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각 조직은 네트워크 내에서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동질적인 조직보다는 자신과는 이질적인 조직들과 연계를 하게 된다(Lin, 2001).¹⁸⁾

대상을 사회복지서비스 조직에 국한해 분석할 경우([그림 6]), 종합사회복지관들이 정보교류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정보자원이 부족한 지역아동센터들이 동일한 유형의 지역아동센터와 직접 연계하기보다는 다량의 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복지관 등과의 자원교류에 상대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성민종합사회복지관 중심의 신림남부지역공부방협의회 네트워크를 분석하면, 성민종합사회복지관이 지난 지역사회자원을 중심으로 다솜/새숲/작은나무들의 집/우리들의 공부방 등 지역아동센터들의 네트워크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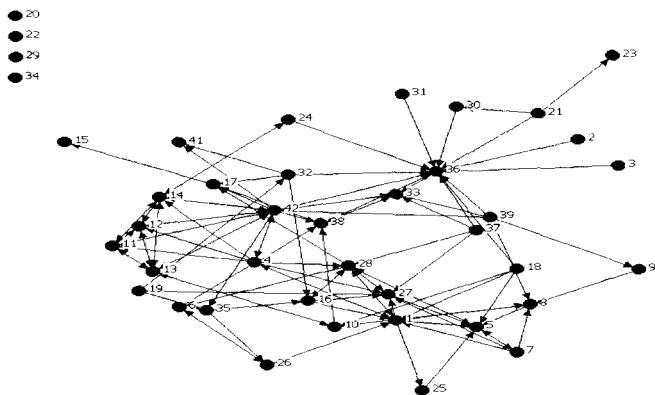
[그림5] 정보교환 네트워크 소시오그래프 (조직 전체 대상)



* 본 소시오 그램에서 원형은 지역아동센터 및 종합복지관으로 사회서비스 조직을 총칭하며, 사각형의 기관은 관공서, 시민단체, 교육단체 등의 매개 기관을 의미한다. 삼각형은 기업을 의미한다.

18) Lin(2001)은 이러한 네트워크 자원을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라는 측면에서 조명하고 있다. 이 때 Lin은 이러한 약한 네트워크 연계(weak tie)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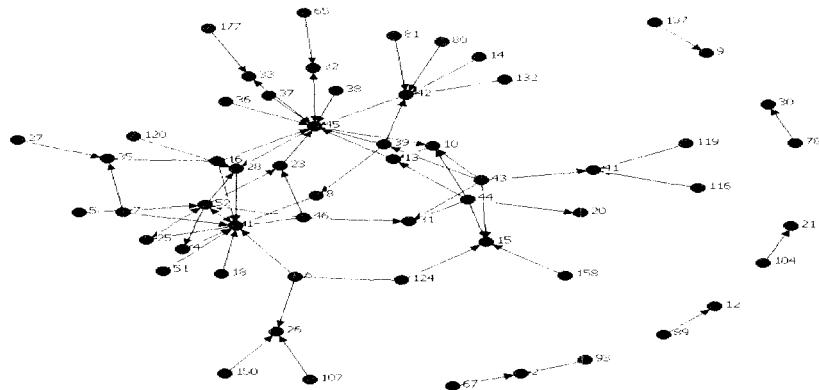
[그림6] 정보교환 네트워크 소시오그램 (사회복지서비스 조직 대상)



2) 인적자원교환 네트워크

[그림7]을 통해 보듯이, 인적자원교환 네트워크의 경우 앞서 분석한 정보자원교류 네트워크와는 그 관계의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인적자원이라는 특수한 자원의 수요 공급에 의한 교환이므로 전문적으로 특화된 조직인 우리아이 희망신림센터(41번), 서울대기초교육원(45번), 서울대이웃사랑본부(44번) 등이 인적자원교환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기존 사회서비스조직들이 공통적으로 인력자원의 부족을 경험하고 있어, 인적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특정 전문기관 등의 매개기관의 역할이 두드러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때 특기할 만한 사항은 정보자원교류에서와 달리 종합복지관 또한 인적자원 교류에서는 주요 수신자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적자원교환의 발신중심성을 살펴보면 관악주민연대와 같은 시민단체, 우리아이 희망신림센터와 같은 복지네트워크 조직, 서울대 기초교육원 등의 인적자원공급 기관들이 인적자원을 제공하는 발신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매개 중심성의 경우([표11]), 서울대 기초교육원(219.0)이 가장 최상위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자원봉사 수업과 관련해 정기적으로 다수의 자원봉사자를 배출해 내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7] 안적자원 교환모형 소시오그램



3) 물적(현금/현물)자원교환 네트워크

[그림8]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물적 자원의 경우 관악주민연대(52번), 관악구청 가정복지과(46번)¹⁹⁾, 참사랑공부방(18번) 등이 물적자원 교류에 있어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참사랑공부방(18번)과 같은 지역아동센터가 물적자원 제공자로서 중심에 서 있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이는 지역아동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지역내 물적자원 공급자 기능 때문이다. 가령 참사랑공부방의 경우 Food Bank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내 중요한 거점 조직이며, 지역내 기탁자 및 기탁조직과 수급처 사이의 매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²⁰⁾

한편 성민종합복지관과 관악주민연대의 물적자원 제공기능과 역할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지역사회 운동을 주도해왔던 관악주민연대 중심의 연대조직들과 성민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신흥 조직체 구성원들간 네트워크의 공존 또한 두드러지는 특징이다.²¹⁾

이들 단체들의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관악주민연대를 중심으로 한 임대아파트 공부방네트워크 단체들이 핵심 네트워크 멤버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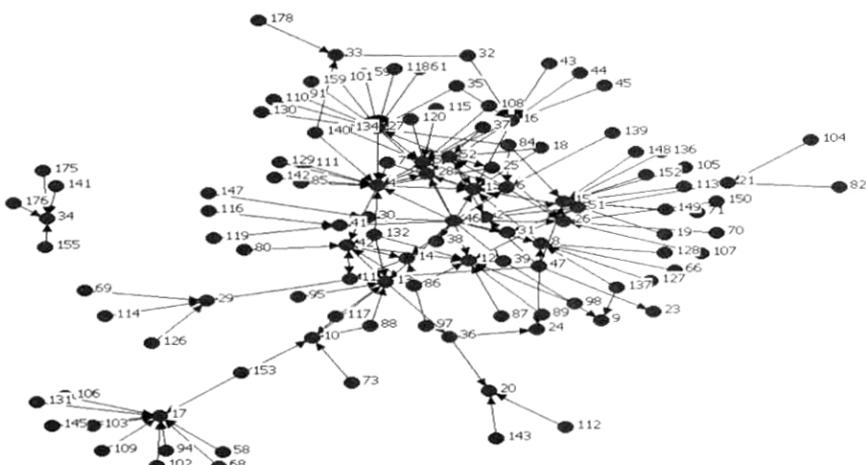
19) 지역아동센터가 범제화되기 이전 이들 단체들의 활동은 자발적이고 독립적이었고, 정부에 지원요청을 하지 않았다. 반면 신설 센터들은 ‘왜 지원을 안 해 주느냐’하고 항의하기도 하는 등 많은 관계변화가 있었다 (보건복지부 권성칠 사무관, 김영지 주사, 전화인터뷰 2006년 7월). 이와는 반대로 산마루/두리하나 등 기존 운영의 취지를 살려 정부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정부주체와는 일정 거리를 유지하려는 공부방도 있다. 이들은 정부지원과 상관없이 자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에 있다 (낙골공부방 실무자 인터뷰, 2006년 8월 28일)

20) 참사랑공부방 실무자 인터뷰 (2006년 5월 23일)

21) 관악주민연대 실무자 인터뷰 (2007년 6월 5일)

([표12]).²²⁾ 한편 관악구청 가정복지과에 물적 자원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단체가 총 16곳으로 관악주민연대보다 연계하고 있는 단체의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발신중심성이 오히려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접촉의 빈도가 떨어지거나 공식적 관계의 성격이 짙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²³⁾ 여기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빛나라 공부방 (2번) 등 수신중심성이 높은 단체들이 접촉하는 대상조직들은 공부방/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동일 유형의 조직이 아닌 다른 유형의 조직들 이를 테면, 관공서, 시민단체 등이라는 점이다([표13]). 이처럼 자원을 획득하고자 하는 조직이 네트워크를 통해 접촉하는 대상은 오히려 다른 유형이나 분야의 조직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잘 드러내 준다.

[그림8] 물적자원 교환모형 소시오그램



4) 클라이언트교환 네트워크

[그림 9]를 통해서 보면 클라이언트 교환모형의 소시오그램은 앞서 본 네트워크와는 크게 다름을 알 수 있다. 전체 네트워크의 집중도(centralization)²⁴⁾가

22) 관악주민연대가 중심이 된 임대아파트 네트워크는 임대아파트 공부방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유지해 오고 있다. 초기에는 관악주민연대 내에 공부방 분과가 따로 있었으나 이후에는 아동청소년 분과로 운영되고 있다(관악주민연대 실무자 인터뷰 2007년 6월 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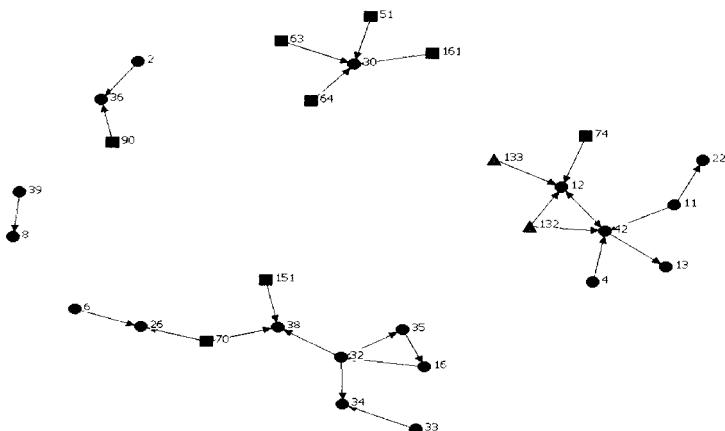
23)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수치형 데이터(valued data)를 쓰고 있으므로, 접촉의 빈도나 강도에 따라 가중치가 부가되는 효과가 있다.

24) 개별조직과 행위자 중심의 중심성(centrality)과는 달리 집중도(centralization)는 전체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측정되는 값이다.

낮으며, 다수의 양자관계(dyad)나 삼자관계(triad)를 중심으로 약한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동명지역아동복지센터(32번)나 성민종합복지관(42번), 봉천종합복지관(36번) 등은 클라이언트 교환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그림의 화살표 방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역아동센터와 사회복지관의 경우 다른 교육기관 내지는 매개기관으로부터 클라이언트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역아동센터가 지역내 사회복지서비스 수요를 일정부분 담당하고 있음을 뜻한다. 뿐만 아니라 종합복지관 등 기준의 공식적 사회복지서비스 비영리조직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측면에서 아동복지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²⁵⁾

[그림9] 클라이언트 교환모형 소시오그램



VI. 결론 및 연구의 함의

본 연구는 지역사회 사회서비스 비영리 조직들이 형성하는 네트워크의 양상을 살펴보고, 비영리 조직이 다른 영리/비영리, 민간/정부조직과 관계를 형성/유지하는 동기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본 연구는 연구문제에 대한 단서를 네트워크에 배태되어 있는 소유자원이라는 측면에서 찾고자 하였으며, 각 교류자원

25) 향후 단순한 물적자원의 교류를 넘어서서 아동의 정서발달 및 아동교육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 등 광의의 자원을 교류하는 새로운 연대의 형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참사랑공부방 실무자 2007년 6월 5일).

의 영역별(정보자원, 인적자원, 물적자원, 클라이언트)로 동질적 혹은 이질적 조직들(homophily or heterophily)이 어떻게 상호 교류하는지(bonding network or bridging network)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는 한국의 민간 사회복지 조직간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민관간 네트워크, 민간 영리/비영리 기관간 네트워크를 총괄해 살펴보았다. 관악구 내의 지역아동센터(방과후 공부방)들은 동일 유형의 조직간에 협의체를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내 사회복지관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관공서, 기업 등 다른 유형 조직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활발히 자원을 교환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사회 변화 전략의 두 주체로 지역아동센터 등의 민간 활동가와 정부 정책 담당자를 전제하고, 이들 주체에 의해 네트워크가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찾아낸 보다 구체적인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교환 중심성은 자원의 다과에 의해서도 결정되지만, 그 외 역사적/사회적 맥락에 의해서도 결정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정보교환 발신중심성을 비교하면 관악주민연대라는 시민단체가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관악주민연대의 경우 지역아동센터가 등장하기 이전 공부방이 지역운동과 아동복지 풀뿌리 조직으로 활동을 시작하던 초기부터 지역연대 운동조직으로 출발하였으며, 이러한 역사적 맥락이 관악주민연대의 네트워크 중심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조직간 자원교환에 있어 중요한 것은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네트워크 내에서의 근접성이나 연결정도 등 사회적/인지적 거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아동센터의 인적자원교환 네트워크 내에서는 종교적, 역사적, 사회적 배경에 따라 네트워크 내의 관계적(relational) · 위치적(positional) 특성을 나타내는 측정결과가 달라진다.

셋째, 연대적 네트워크(bonding network) 관계를 넘어선 교량적 네트워크(bridging network)가 새로운 조직간 관계 양상으로 각광을 받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다시 말하면, 동질성(homophily)에 기초한 투쟁적 연대관계에서 벗어나 이질성(heterophily)에 기초한 교환적/보완적 상호관계가 점차 조직간 네트워크의 주요한 양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일례로 관악주민연대의 성격이 기존의 운동 중심의 연대적 네트워크를 추구했다면, 성민종합사회복지관을 주축으로 하는 소유자원의 교환을 통한 상호협력적 네트워크가 새로운 양상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

넷째, 지역사회문제 해결과 관련해 거버넌스적 시각에서 지역내 조직간 네트워크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정책적 함의이다. 자원 부족의 시대에 민간의 자발적 조직 네트워크가 지닌 문제해결의 역량(capacity)을 정책의 수단(tools of

governance)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Salamon, 2002), 본 연구는 지역 사회 고유의 사회자본의 활용 및 정책자원의 발굴이라는 시사점을 지닌다.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연구방법론상 인과적 설명보다는 탐색적 기술에 치우친 연구로서 지니는 한계이다. 이는 네트워크 연구가 갖는 근본적인 한계로서 향후 다른 분석 기법들을 통해 향후 본 연구의 발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엄밀한 의미의 Full network methods를 적용하지 못하고, 연구진행과정에서 누적표본추출(snowball sampling)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절충을 함으로써 네트워크 자료를 수집하고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 분석의 완벽함을 재현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따랐다. 셋째, 네트워크 연구의 특성상 조직내부 변수와 조직차원의 변수를 동시에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기존 조직연구와의 연결 고리를 찾을 때 일정부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조직 내 개인수준 변수와 조직수준 변수의 차원을 종합해 양자간의 관계를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연구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 강은숙. (2002). 정책변동의 정책네트워크이론적 분석-그린벨트정책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와 행정연구」, 13(1): 103-125.
- 강창현. (2001).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고길곤. (2007). 정책네트워크 연구의 유용성과 사회연결망 이론 활용방법의 고찰. 「행정논총」, 45(1): 137-164.
- 김용학. (2004a). 「사회연결망 이론」. 서울: 박영사.
- _____. (2004b). 「사회연결망 분석」. 서울: 박영사.
- 김인숙. 신은주, 김혜선. (1999).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네트워크모델 개발. 「한국사회복지학」, 3: 63-90.
- 김준기. (2000). 정부-NGO관계의 이론적 고찰: 자원의존모형의 관점에서. 「한국정책학보」, 9(1): 5-28.
- _____. (2006). 「정부와 NGO」. 서울: 박영사.
- _____. 이민호. (2006). 한국의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관의 네트워크와 조직효과성. 「행정논총」, 44(1): 91-126.
- 박인선. (2004). 지역아동센터의 시대적 의미와 전망. 「지역아동센터공부방 협회」. 협회: 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 박차성. (2006). 사회서비스 비영리조직들의 협력 패턴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행정학보」, 40(4): 353-376.
- 백종만·홍경준 (1999), 실업극복을 위한 민간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 전북지역의 민간 비영리조직간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회 자료집.
- 보건복지부. (2005). 「지역아동센터운영과정」.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손동원. (2002). 「사회 네트워크 분석」. 서울: 경문사
- 송희준, 송미원. (2002). 이동통신 정책네트워크와 사업자선정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11(4): 359-384.
- 이향란. (1996). 방과후 아동지도의 실태와 기관운영에 관한 연구-공부방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현주 (1998), 사회복지조직 구성원의 조직간 관계: 장애인복지 관련조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논문.
- 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2004). 지역아동센터공부방 현황인식과 발전방향. 지역아동센터공부방 간담회 자료집. 서울: 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 _____. (2005). 2005년 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임시총회자료집 통권 제12호.
- 전국카톨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2005). 카톨릭 공부방의 정체성과 나아갈 방향. 「2005년 전가공협 심포지움 자료집」. 서울: 전국카톨릭지역아동센터
- 한인숙·김희연. (2001). 네트워크 이론에서 본 지역사회복지-지방정부와 사회복지관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24. 서울: 한국행정학회
- 홍경준. (2000). 실직관련 민간비영리 조직간 관계의 구조적 특성연구: 의사소통관계와 실질관련 활동의 전개양상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15.
- 홍송이. (2001). 자활서비스조직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
- Aldrich, H. E. (1976). Resource dependence and interorganizational relations: Relations between local employment service offices and social service sector organizations. *Administration and Society*, 7: 419 - 454.
- Aldrich, H. E., & Whetten, D. A. (1981). Organization sets, action sets and networks: Making the most of simplicity. In P. C. Nystrom & W. H. Starbuck (eds.), *Handbook of organizational design*, 385 - 408.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enson, J. K. (1975). The inter-organizational network as a political economy.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20: 229-249.
- Blau, P. M. (1964). *Exchange and Power in social life*. New York: Wiley.

- Boje, D. M., & Whetten, D. A. (1981). Effects of organizational strategies and constraints on centrality and attributions of influence on changes in board composi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4: 805-826.
- Bolland, J. M., & Wilson, J. V. (1994). Three Faces of Integrative Coordination: A Model of Inter-Organizational Relations in Health and Human Services. *Health Service Research*, 29(3): 341-366.
- Burt, R. S. (1980). Models of network structure. *Annual Review of Sociology*. 6: 79 - 141.
- Coleman, James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5-120.
- Considine, Mark & Lewis, Jenny M. (2003). "Bureaucracy, Network, or Enterprise? Comparing Models of Governance in Australia, Britain, the Netherlands, and New Zealand",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3(2).
- Cook, K. S. (1977). Exchange and power in networks of interorganizational relations. *Sociological Quarterly*, 18: 62-82.
- Doreian, P. & Stokman, F. N. (1997). Evolution of social networks. Amsterdam; United Kingdom: Gordon and Breach.
- Emerson, R. (1962). Power-dependence relatio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7: 31-41.
- Evan, W. M. (1978). Interorganizational relation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Evans, Peter. (1996). Government Action, Social Capital and Development: Reviewing the Evidence on Synergy. *World Development*, 24(6).
- Freeman, L. C. (1979). Centrality in social networks: Conceptual clarification. *Social Networks*. *Journal of Mathematical Sociology*, 10: 343-360.
- Galaskiewicz, J., & Burt, R. S. (1991). Interorganization contagion in corporate philanthropy.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6: 88-105.
- Galaskiewicz, J. & Wasserman, S. (1989). Mimetic process within an interorganizational field: An empirical test.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4: 454-479.
- Jones, Candace, William S. Hesterly, & Borgatti, Stephen P. (1997). A General Theory of Network Governance: Exchange Conditions And Social Mechanism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2(4).
- Knoke, David & Kuklinski, J. H. (1981). Network Analysis. Beverly Hills: Sage.
- Larson, A. (1992). Network dyads in entrepreneurial settings: A study of the

- governance of exchange relationship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7.
- Levine, S., & White, P. E. (1961). Exchange as a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study of interorganizational relationship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5(4): 583-601.
- Lin, Nan. (2001). *Social Capital : A theory and social structure and ac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n, Nan, Cook, Karen & Burt, Ronald S. (2001). *Social Capital :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Aldine de Gruyter.
- Litwak, E., & Hylton, L. F. (1961). Interorganizational analysis: A hypothesis of coordinating agencie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6: 395-421.
- Marsden, Peter V. (1990). Network Data and Management. *Annual Review of Sociology*, 16.
- Marsden, Peter V., & Jeanne S. Hurlbert. (1988). "Social Resources and Mobility Outcomes: A Replication and Extension," *Social Forces*, 66 (4), 1038-59.
- McGuire, Michael, (2002). "Managing Networks: Propositions on What Managers Do and Why They Do I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2(5): 599-609.
- Mizruchi, Mark S., & Galaskiewicz, Joseph. (1994). Networks of interorganizational relations. In Stanley Wasserman & Joseph Galaskiewicz (eds.), *Advances in social network analysis: Research in the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230-253. Thousand Oaks, CA: A Sage Publications.
- O'Tool Jr., Laurence J. & Meier, Kenneth J. (1999). Modeling the Impact of Public Management: Implications of Structural Context.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9(4).
- Paulson, S. K. (1985). A paradigm for the analysis of interorganizational networks. *Social Networks*, 7: 105-126.
- Peters, B.G. & Pierre, J. (1998). Governing without Government: Rethinking Public Administration. *J-PART*, 8: 223-242.
- Pfeffer, J. & Salancik, G. R. (1978). *The external control of organizations*. New York: Harper & Row.
- Powell, W. W. (1990). Neither market nor hierarchy: Network forms of organization, In Staw B. & Cummings L. L. (eds.),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JAI Press.
- Provan, K. G., & Milward, H. B. (1995). A Preliminary Theory of Interorganizational Network Effectiveness: A Comparative Study of Four

- Community Mental Health System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0: 1-33.
- Rogers, D. O. (1974). Sociometric analysis of interorganizational relations: Application of theory and measurement. *Rural Sociology*, 39: 487-503.
- Salamon, Lester M. (2002). *The Tools of Government: A Guide to the New Governan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charpf, Fritz W. (1978). Inter-organizational Policy Studies: Issues, Concepts and Perspectives. In K. Han & Fritz W. Scharpf (ed.), *Interorganizational Policy Making: Limits to Coordination and Central Control*, London: Sage Publications.
- Scott, John, (2000). *Social Network Analysis*, SAGE Publications.
- Selznick, P. (1949). *TVA and the grass roots*. New York: Harper & Row.
- Skocpol, Theda, (1996). Unravelling From Above. *The American Prospect*, 25, March - April: 20 - 25.
- Thompson, J. D. (1967). *Organization in action*. New York: McGraw-Hill.
- Van de Ven, A. Emmett, D. & Koenig, R. (1975). Frameworks for interorganizational analysis. In A. Negandhi (ed.), *Interorganizational Theory*, 19-38. Kent, OH: Kent State University Press.
- Voyer et al. (2005). Social Capital as a public Policy Tool, Policy Research Initiative Project, Canada.
- Wasserman, S., & Faust, K. (1994).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s and application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ellman, B. (1988). Structural analysis: From method and metaphor to theory and substance. In B. Wellman & S. D. Berkowitz, (eds.), *Social structures: A network approach*, 19-6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oodard, Katherine L. & Doreian, Patrick (1994), Utilizing and Understanding Community Service Provision Networks: A Report of Three Case Studies Having 583 Participants.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18(3). 1-41.
- Zald, M. N. (ed.). (1970). *Power in organizations*. Nashville, TN: Vanderbilt University Press.

[Appendix]

[표10] 정보교환 발신(외향)중심성 상위 조직

순위	조직	발신중심성	순위	조직	발신중심성
1	관악주민연대	480.5	6	신림종합사회복지관	273.0
2	성민종합사회복지관	460.0	7	선의관악 종합사회복지관	263.0
3	두리하나 공부방	426.0	8	중앙대 종합사회복지관	261.0
4	산마루 공부방	396.0	9	신세계푸드시스템	240.0
5	희망오름 공부방	358.0		나눔의 집	240.0

$$* v(n_i) = \sum_j x_{ji} \quad C_D(n_i) = \frac{v(n_i)}{g-1}$$

* 본 연구에서 발신중심성의 절대수치가 네트워크 내의 조직 수 (179) 보다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본 연구가 이분형 (binary) 데이터가 아닌 수치형(valued)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단순히 서로 자원을 교환하는지 여부만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일년간 (2005년 9월 ~ 2006년 8월 말) 얼마나 자주 접촉을 했는지를 수치화하고 있는데 이는 보다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한편 이 경우 발신중심성에 대한 해석이 이분형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와 달라진다. 즉, 얼마나 많은 기관들과 교류를 했느냐에 대한 분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얼마나 활발히 자원교환 및 의사소통을 했는가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해석이 가능하다.

[표11] 인적자원교환 매개중심성 상위조직

순위	조직	매개중심성	순위	조직	매개중심성
1	서울대 기초교육원 (자원봉사수업)	219.0	6	성민종합 사회복지관	44.0
2	열린 공부방	166.5	7	꿈나무 공부방	37.5
3	관악주민연대	137.5	8	희망 공부방	12.0
4	드림 한누리 공부방	94.0	9	낙골 공부방, 동명지역아동복지센터, 상록보육원	10.0
5	온천 공부방	70.0			

* 매개중심성은 다음과 같은 지표로 나타낼 수 있다.

$$C_B(n_i) = \sum_{j < k} g_{jk}(n_i)/g_{jk}$$

g_{jk} 는 최단거리를 갖는 경로들의 수를 나타낸다. 만약 특정 행위자 i 가 두 행위자 사이의 최단거리 경로 사이에 존재하는 수를 $g_{jk}(n_i)$ 라고 한다면 이들 사이의 비율은 바로 매개중심성을 나타낸다.

* 이분형 데이터로 변형해 사용하였음

[표12] 물적(현금/현물)자원 교환 발신(외향) 중심성 상위조직

순위	조직	발신중심성	순위	조직	발신중심성
1	관악주민연대	277.0	6	참사랑 공부방	51.0
2	관악구청 가정복지과	179.0	7	뚜레쥬르 봉천9동점	48.0
3	던킨 도너츠	52.0	8	드림한누리 공부방	36.0
4	까또 마들린 제과점	52.0	9	오렌지 제과점	36.0
5	선의관악 공부방	52.0	10	두리하나 공부방	35.0

[표13] 물적(현금/현물)자원 교환 수신(내향) 중심성 상위조직

순위	조직	수신중심성	순위	조직	수신중심성
1	빛나라 공부방	212.0	6	샘물 공부방	85.0
2	열린 공부방	154.0	7	작은 나무들의 집	68.0
3	관악주민연대	146.0	8	산마루 공부방	64.0
4	산성 공부방	140.0	9	새숲 공부방	62.5
5	한누리 공부방	117.0	10	우리아이 희망신림센터	36.0

[표14] 클라이언트교환 발신(외향) 중심성 (사회복지서비스 조직에 국한)

순위	조직	발신중심성	순위	조직	발신중심성
1	희망오름 공부방	48.0	6	작은나무들의 집	2.0
2	새숲 공부방	12.0		상록 여자자립 생활관	2.0
3	성민종합사회복지관	6.0		낙골 공부방	2.0
4	중앙대 종합사회복지관	5.0	9	살림터 공부방, 동명지역아동센터, 서울신림청소년쉼터, 봉천종합사회복지관	1.0
5	성장 공부방	3.0			

Abstract

Organizational Networks in Local Communities: Focusing on Inter-Organizational Networks among Social Service Centers for Children

Jun-ki Kim · Bok-gyo Jeong

This study explores the traits of inter-organizational networks and organizational behavior, with a case study of networks among social service centers for children in Seoul.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organizational incentives for exchanging organizational resources (information resources, human resources, financial and physical resources, clients) underpinning network formation and change. The networks in this case encompass networks between private and government organizations, networks between private companies and NGOs, as well as networks among NGOs. This analysis utilizes UCINET 6.0 with the method of snowball sampling, and the scale of measurement of value data. In addition, this study combines in-depth interviews with civil officials in government organizations and staff in NGOs. This research found that the exchange of resources might be influenced by historical or social context, let alone by the type or amount of resources they own. Furthermore, this paper captures the phenomenon of networks going beyond the stage of resorting to bonding social capital based on homogeneous networks and moving toward the stage of embracing bridging social capital characterized by heterogeneous networks.

【Key words: NGO, Nonprofit Organizations, Network, Governance, Social Service Centers for Children, Organizational resources, Social Capital】